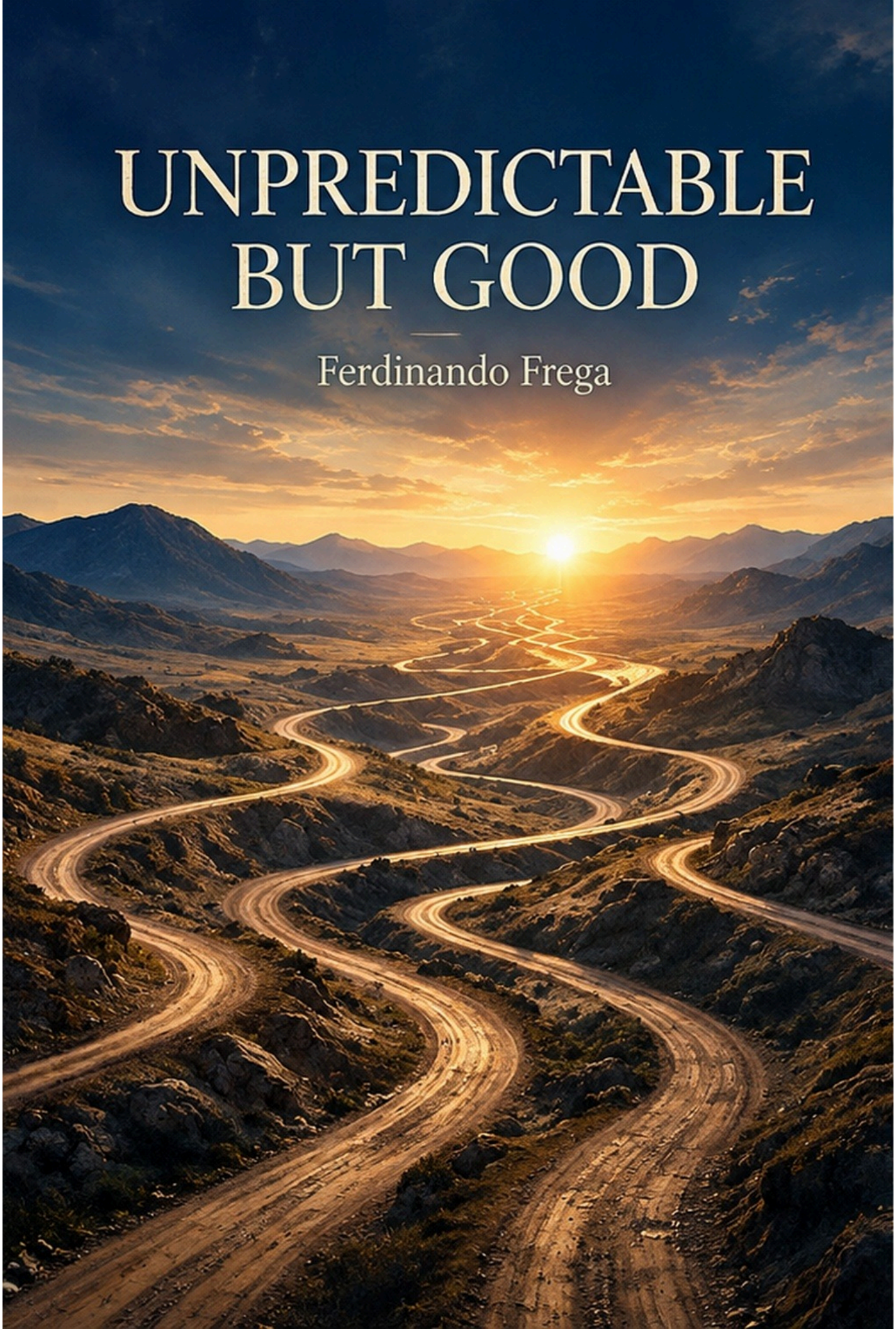
UNPREDICTABLE BUT GOOD

Ferdinando Frega



GILLETTE: 예측할 수 없지만 선한

그는 두 번 태어났다 — 한 번은 칼라브리아에서 실수로, 한 번은 미국에서 운명으로 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탄생을 모두 누릴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쌓았다. 그런 다음 그는 사실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스스로 말하게 했다 — 해설도, 분석도, 이미 몸짓 속에 있지 않은 형용사도 없이.

그보다 앞서 간 아버지, 이미 달려온 40년의 길. 한눈판 황새 한 마리. 열한 살, 해변, 그리고 속옷을 입지 않은 한 여자. 대학으로서, 가족으로서, 전쟁으로서의 Gillette. 그가 알게 하기로 선택한 것만 아는 아내. 세 아이 — 언제나 되돌아오는 그 셋. 어느 날 그를 비난하는 Rosario, 그래도 그는 똑같이 작별 인사를 한다.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쓴 80권의 책. 2025년 4월에 세상을 떠나고도 결코 그를 떠미는 것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. 나폴리 암탉과 이미 삶아 놓은 달걀을 가진 한 터키 남자. 그리고 마지막에 — 에필로그가 아니라 목적지로서 — 미국의 밤, 영원한 안식, 그리고 그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그러나 그 간결한 문장 뒤에는 더 큰 설계가 있다. 전기가 아니라 — 도덕의 지도다. 규율을 언어로, 일을 정체성으로, 기억을 건축으로 바꾼 한 남자의 궤적. 대륙을 지나듯 시스템들을 — Gillette, L'Oréal, Procter를 — 지나간 남자. 같은 면도날, 같은 믿음을 지닌 채.

그의 삶은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다. 그것은 성격의 기하학이다. 의무와 자유, 아버지와 아들, 면도날과 다정함. 그는 모든 책이 DNA의 한 조각이고, 모든 단어가 하나의 코드이며, 모든 몸짓이 하나의 서명인 서사의 우주를 세웠다.

그리고 누군가 그가 정말 누구였느냐고 묻는다면, 대답은 간단할 것이다. 예측할 수 없지만 선할 줄 알았던 한 남자.

그의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. 의미 있는 유일한 말.

Nando